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그리스도론, 세션 20

체계학, 그리스도의 인간성, 속성의 소통, 속성의 실행, 두 상태, 빌립보서 2:1-11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그리스도론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0, 체계학, 그리스도의 인간성, 속성의 소통, 속성의 행사,
두 상태, 빌립보서 2:1-11입니다.

우리는 속성의 소통을 계속 연구합니다. 이것은 성경적 현상으로, 한 문장 안에서, 구절뿐만 아니라 한 문장 안에서, 성경이 그리스도를 신성한 칭호로 언급하지만 신성에 해당하지 않고 인간성에 해당하는 것을 그에게 귀속시킵니다.

그것은 그에게 신성한 칭호를 주고, 같은 문장 안에서 그에게 인간적 특성을 주기 위해 인간적 칭호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린도전서 2 장에서도 봅니다. 바울은 그리스인들이 수사학,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연설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말했습니다.

그 맥락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 대해 설교합니다. 이것은 그에게 친구를 사귀거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계시다고 확언합니다.

2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왔을 때, 나는 헬라인 방식인 높은 말이나 지혜로 하나님의 증거를 전파하지 않았습시다. 이 웅변가들은 연회에서 말하고, 대중 앞에서 연설하고, 등등을 하기 위해 상당한 돈을 받았습시다. 그리고 한 사람은 웅변, 수사학, 설득력 면에서 다른 사람을 능가하려고 했습시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고린도전서 2:2). 나는 너희와 함께 약함과 두려움과 큰 떨림으로 있었노라. 내 말과 내 메시지는 지혜의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영과 능력의 증거로 하였노라.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성숙한 자들 가운데서 우리는 지혜를 전합니다. 비록 그것이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지만, 그들은 사라질 운명입습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밀하고 숨겨진 지혜를 전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정하신 것입습시다. 이 시대의 통치자들 중 아무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시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습시다. 또 다른 것이 있습시다.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확실히 신성한 칭호입습시다. 영광의 주님, 또는 영광스러운 주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시다. 분명히, 인간적 특성은 다시 말해서 필멸성, 필멸하는 존재,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존재입습시다.

사실, 십자가형이라는 끔찍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습시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들이 위대한 지혜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그들의 완전한 어리석음을 보여주었습시다. 그것은 완전한 어리석음, 완전한 어리석음,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길에 대한 무지였습시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칭호, 영광의 주님. 인간적 속성, 십자가 처형.

필멸자라는 것. 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는 것. 이것도 속성의 소통입니다.

그것의 현금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그는 신성한 칭호로 언급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그에 대해 언급된 것은 그의 신성이 아니라 그의 인간성에 관한 것이다.

다시 한번 수정해 보죠, 따옴표로 말합니다. 그들은 영광의 주님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슬픔의 사람이고 슬픔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명칭, 인간의 귀속일 것입니다.

다른 경우에는 신성한 명칭, 영광의 주님, 신성한 귀속입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을 만한 것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넘어갑니다.

그것은 소통합니다. 그것은 그를 신이라고 부름으로써 다른 것과 한 가지 본성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신이 아니라 인간적인 일과 관련이 있다고 매우 많이 돌립니다. 아마도 가장 강력한 것은 요한일서 1장일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인들을 완전히 미치게 만들 것입니다.

오, 세상에.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은 헬레니즘 철학과 완전히 상반됩니다. 요한이 말했듯이, 태초부터 있었던 것,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것, 곧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이 나타났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증거하고,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우리 에게 나타난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귀을 갖게 하려 함이니라. 참으로 우리의 사귀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인,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인이 이 말을 듣는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 또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번역될 수 있는 동일한 가치는 신을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신의 말씀은 그가 말하는 사람이며, 그저 페이지에 있는 몇 마디의 단어가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듣고, 보고, 만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인에게는 신성모독입니다.

신을 봤어? 신을 들었어? 그리고 살인자가 있어, 생명의 말씀을 만졌어? 바보 들어, 신을 만질 수 없어. 글썄, 하늘에 계신 신은 보이지 않고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정확히 요점은, 지상에 있는 신은 성육신으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들이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그 분은 생명의 말씀, 모든 것의 창조주, 아버지의 대리인이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신성한 칭호? 생명의 말씀.

인간적 특성? 감각에 민감함. 보이고 들리고 만질 수 있음. 현금 가치? 이 모든 것에 대해.

그것은 그를 신이라고 부르고, 그에 대해 신이 아닌 인간에게 적절한 것을 말함으로써 그 사람의 일체성을 강조합니다.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그들은 경배하며 절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신성한 칭호? 신성한 동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적인 특성이죠.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아니면 그들은 나사렛 사람, 마리아의 아들을 보고, 듣고, 만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버지, 요셉과 그의 형제 자매들. 인간적 직함? 인간적 동사, 인간적 속성. 여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 언급된 것은 그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의 존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진정한 인간 본성을 자신에게 취함. 따라서 속성의 소통은 사람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성경적 표현 방식입니다. 이 한 사람은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동시에 신이자 사람이다. 나는 또한 엘리자베스가 마리아를 환영하는 루가복음 1:43을 추가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엘리자베스가 어떻게 이것을 알았는지 모른다.

아마도 주님께서 그녀에게 계시하셨을 것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일어나서(눅 1:39) 서둘러 산간지방으로 가서 유다의 한 마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들었을 때, 아기가 그녀의 태에서 뛰놀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빨리 움직이고 싶어했습니다. 그는 태중에 있었고, 말하자면 이미 그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것은 종종 말하고 예언하는 것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고 당신의 태의 열매도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 오는 것이 내게 허락된 것은 무슨 까닭인가? 보라, 당신의 인사 소리가 내 귀에 들리자 내 태중의 아기가

기뻐 뛰놀았도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은 그녀는 복이 있도다. 내 주님의 어머니.

주님, 신성한 칭호. 엘리자베스가 그것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의 요점은 그게 아닙니다. 신은 이해합니다.

신성한 칭호. 신에게 어머니가 있나요? 뭐라고요? 글썄요, 영원하고 전능하신 신, 신격의 두 번째 인격이 마리아의 자궁에서 그의 인간성을 처녀적으로 잉태함으로써 바로 진정한 인간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신성한 칭호이며, 그에 대해 언급된 것은 신성과 관련이 없고, 인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어머니가 있고, 그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은 사람의 통일성을 강조합니다. 저는 신성한 본성에서 인간으로 속성을 존재론적으로 공유하여 예수의 인간성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개념을 큰 존경심을 가지고 지지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저는 칼빈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인간의 그리스도, 신-인간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는 그분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것이 단지 말하는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한 문학적 기법? 그렇습니다. 강력한 기법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도, 존재론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의 일치의 기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파와 루터교는 이러한 의미에서 속성의 소통이 있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복음서에서 한 본성에 대해 말한 것은 전체 인격에 해당합니다.

결코 분리된 것은 없고, 성육신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리된 인간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의

인간성, 그의 약함, 그의 무지함, 그의 투쟁, 그의 배고픔, 목마름, 피곤함, 죽음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 말합니다.

단순한 인간은 없다. 그것은 네스토리우스파다. 네스토리우스파다.

아마 이걸, 이 분류법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여기는 네스토리우스주의입니다. 그리스도를 둘로 나누는 거죠.

여기 개혁 신학이 있습니다. 네스토리우스 신학은 아니지만, 모노피지스트론이나 유티케스주의보다 개혁 신학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 루터교 신학이 있습니다.

오, 그것은 개혁 신학보다 네스토리우스주의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일성설 또는 유티케스주의가 있는데, 이는 그가 두 가지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 두 본성이 혼합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지만, 그는 혼합체입니다.

그는 하이브리드, *tertium quid*, 그리고 *third*, 다른 무언가입니다. 이제, 개혁파가 네스토리우스파가 아닌 것처럼, 루터교도는 유티케스파나 단일신론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끔찍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개혁파는 단일성론보다 네스토리우스주의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요 학교에서 많은 사람이 제가 그에게 무언가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오,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사람을 분리하려고 했나요? 아니요. 하지만 그들은 그 사람을 그의 인간성에 관해 말하는 데 신중했나요? 아니요. 그리고 저는 기쁩니다. 그것이 그들이 저와 같은 교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유머를 시도한 것이었고, 분명히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루터교도들은 단성론자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단성론자입니다.

그들은 단일신론을 고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티케스주의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재산의 소통에 대한 개념은 확실히 그들을 다른 쪽의 네스토리우스주의 같은 것보다 단일신론에 더 가깝게 만듭니다.

우리는 논의할 한 가지 영역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의 일치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주님의 속성의 행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하고 인간적인 속성의 행사를 그의 인격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를 신성한 용어로 말하고, 그에게 신성한 칭호를 주며, 때때로 신성한 일을 행합니다.

다른 때는 그에 대해 말하고, 잘 말했어요. 그게 매번 핵심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 그 사람에 대해 인간적인 관점에서 말해요. 피곤하거나, 약하거나, 유혹을 받거나, 죽는 것처럼요. 제가 말할 게 두 가지 있어요.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체계신학은 정확히 이렇게 합니다. 체계신학은 진리를 범주에 따라 반복하는데, 그 범주는 진리를 더 명확하고, 더 잘 이해되고, 더 기억에 남게 하기를 바라며, 특히 다른 성경적 진술과 신학적 진리와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말하는 모든 성경적 진술은 그 사람 전체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어떤 진술은 한 가지 본성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만, 육신을 입은 자의 모든 진술은 육신을 입은 자의 진술입니다. 그것들은 신이나 그의 인간성에 대한 별도의 진술이 아닙니다.

분리된 인간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말씀, 영원한 아들은 나사렛 예수 안에서 완전히 육신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그가 여행에 지쳐 야곱의 우물에 앉았다는 것을 읽을 때, 그것은 사람 예수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신인 예수에 대해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의 신성한 본성에 특별히 강조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증거, 그의 인간적 본성에 특별히 강조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양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립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 그의 인간성과 관련하여 말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히브리서 2:14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은 바로 그가 죽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오, 그가 죽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가르치셨지만, 그는 주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14에서 자녀들이 혈육에 참여하였으므로 그도 또한 같은 것에 참여하셨으니, 이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두려움으로 평생 노예가 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의 혈육에 참여하셨으므로 그는 죽어서 악한 자를 이기고 그의 백성을 구속하셨습니다.

지상의 신은 죽었습니다. 신인(God-man)이 죽었습니다. 그런 구절은 확실히 그의 인간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조심하고 네스토리우스주의로 기울지 말자. 예수라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성을 특별히 언급하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악한 자를 물리치기 위해 죽으신 성육신한 아들이다.

요한복음 10장으로 돌아가자. 나는 내 목숨을 내려놓고 다시 취한다. 아무도 내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한다.

나는 내 의지로 그것을 한다. 인간성, 인간성, 인간성.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것을 하라는 명령을 주셨다.

인류여, 나는 내 목숨을 내려놓고, 다시 취한다. 신은 스스로를 일으키시는 신-인간 그리스도다. 나는 특별히 그 사람을 분리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네스토리우스주의를, 다른 한편으로는 유티케스주의를 피하면서 지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우리는 칼케돈의 진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혼돈 없이, 본성 없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혼돈 없이, 변화 없이 두 본성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단일신론, 유티케스주의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분리도 없고 분열도 없습니다. 그것은 네스토리우스주의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는 모든 진술을 어떤 종류의 큰 격자로 분석할 수 있을까? 오, 그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하고, 그는 신으로서 이것을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어떤 구절들은 다른 본성들 중 하나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육신하신 아들에 대해 말하는 모든 성경적 진술은 한 본성이나 다른 본성이 아니라 전체 인격에 기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한 본성이나 다른 본성과 관련이 있지만, 때때로 어떤 진술들은 그의 신성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합니다.

즉, 나는 내 생명을 일으킬 권한이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만 있습니다. 이 성전을 파괴하면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킬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내 목숨을 내려놓고 다시 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일으키시나요? 으악. 정말 놀랍네요.

항상 아버지 이시며, 직접적으로든 우리가 신적 수동성이라고 부르는 것으로든.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잘 모르겠지만, 6번 정도 부활이 영에 기인합니다. 예수께는 다른 곳에서는 절대 없습니다. 네 번째 복음서에 나오는 신성한 그리스도가 스스로를 부활시킵니다.

물론, 완전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삼위일체가 아들을 낳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특히 아버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도, 그리고 적어도 한 곳, 한 책에서 아들도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모든 성경적 진술은, 심지어 그의 인간성이나 신성에 큰 강조점을 둔 진술조차도, 그 전체 인격에 기인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별도의 사람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사실이지만 로고스는 어떤 의미에서 sar kos로 남아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온전하며, 성육신한 아들은 성육신 밖에 존재함으로써 어떤 일을 합니다. 아무리 다루기 힘들더라도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신성한 속성의 행사를 자발적으로 종속시켰습니다. 여기서 가정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신성한 속성을 온전히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케노시스는 없습니다. 그는 특정한 속성, 심지어 화신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모든 것까지도 벗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화신한 사람이 몸 안에서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성육신 밖에 완전히 남아 있는 아들로서 그 속성을 유지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강조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모든 신성한 권능을 온전히 유지하십니다.

그는 그것들의 소유, 그것들의 존재론, 그것들을 소유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들의 독립적인 행사를 포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무력화된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는 능력이 있어요.

오, 맞아요, 하지만 그는 오늘날 몇몇 훌륭한 복음주의 기독교 철학자들이 말하듯,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티브 웰럼을 따라, 저는 강력하고, 존경스럽게, 이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좋은 변증 작업을 하는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알고 싶다면 웰럼의 책을 마지막에 읽어보세요. 물론 그는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는 그들을 존중하며, 인용하고, 형제로서가 아니라 뛰어난 형제로서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와 나에게는 철학자들의 경향이 때때로 솔라 스크립투라를 행사하는 대신 솔라 필로소피아를 행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이성 그 지점에서 성경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하, 저는 악의 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성육신하신 아들에게 신성한 일을 돌리기 때문에,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다고, 그는 걸을 수 없는 루가복음 2장의 남자에게 말합니다. 글쎄요, 어떤 사기꾼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실 그의 적들도, 예수께서 신성한 지식을 행사하여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도록 했다고 말합니다. 오, 당신은 말합니다, 어서요, 그는 그들의 얼굴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과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그것을 볼 수 있지만, 그는 그들의 마음을 보면 확실히 압니다.

그가 그랬듯이, 그는 사마리아 여인의 얼굴에서 볼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지상에 있을 때 그의 재림의 시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항상 이러한 신성한 속성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성한 지식의 힘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확실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남자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 자매님, 제가 당신을 반대하는 말을 한 것을 용서해 주시겠어요? 오, 네, 형제님.

그거 좋네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용서하시는 방식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와. 보이지 않는 기적. 누구나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거야.

오, 예. 맞아요. 알았어요.

그래서 땅에서 사람의 아들이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행할 것이다. 네 침상을 치우고 걸어가거라.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는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하면서 보이지 않는 기적을 행했고 죄를 용서하는 데 신성한 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그를 체포하러 왔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나사렛 예수입니까? 나는 나입니다, 요한복음 18장.

광, 그들은 쓰러진다. 존은 이런 일을 반복한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약함으로 십자가에 가시지 않고, 능력으로 십자가에 가시는 것을 보여준다

.

요한복음 13장. 저녁 식사 때, 악마는 이미 유다의 마음에 그를 배반할 마음을 넣었습니다. 유다 시몬의 아들. 믿으세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들은 그런 작은 일에 기뻐했습니다.

아니면 유다, 이스카리옷이라고도 불립니다.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제자들과 다른 추종자들은 그런 자격을 가진 것을 정말 기뻐했습니다. 와우.

예수, 요한복음 13:3.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주셨고 그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을 알고 저녁 식사에서 일어나서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예수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신성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꺼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모든 신성한 능력을 가진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것을 사용합니다.

죽음에서 자신을 부활시키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아들이 죽음에서 자신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장과 20장인가요? 요한은 예수의 난해한 말씀을 해석합니다.

만약 당신과 내가 이방인의 뜰에 서 있거나, 어쩌면 여인의 뜰에 서서 그가 이 성전을 파괴하고,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짓고, 내가 그것을 세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면, 그것은 미친 소리처럼 들립니다. 유대인들은 헤롯 대왕의 성전 개조 계획에 따라 이 성전을 짓는 데 46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울 것입니까? 요한은 그의 문학적 특징 중 하나인 편집적 논평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몸의 성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그의 제자들은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했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그들은 성경과 예수가 한 말씀을 믿었는데, 그의 말씀이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동등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육신하셔서 자신의 신성한 속성의 행사를 종속시키셨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속성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는 오직 아버지의 뜻일 때에만 자신의 신성한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감소는 없었지만 그의 신성한 힘의 가려진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형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램프갓을 벗기고 와트수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보통 램프갓은 켜고 빛은 훨씬 낮았습니다.

후광은 없습니다. 그는 그 자체이지만, 그가 신성한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일 때처럼 항상 그가 누구인지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두 상태의 교리를 고려함으로써 우리의 과정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종교 개혁 이후 루터교와 개혁 신학자들은 모두 특정 진리를 고려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이러한 진리를 확인했지만, 소위 두 상태 교리에서 이를 구체화한 것은 그들의 신학적 상속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번 살펴본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은 성경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두 상태 교리를 제시합니다.

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마음을 너희도 가지라. 이 위대한 그리스도론의 목적은 빌립보인들, 특히 유오디아와 순두게가 건강하고 건강한 교회에서 연합을 증진하기 위해 따를 수 있는 겸손의 모범으로 예수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했지만, 빌립보서 2:6에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붙잡을 만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상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태어나시고 사람의 형상으로 발견되셨으므로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 순종하셨다. 이 구절들은 겸손의 상태에 대해 말한다.

두 상태, 두 상태 교리는 우리 주님이 잉태와 탄생에서 매장에 이르기까지 두 가지 연대기적 단계를 거쳤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굴욕의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잉태, 탄생, 유혹, 삶의 투쟁, 죽음, 그리고 놀랍게도 매장이 포함됩니다. 신이 매장되었나요? 아니요, 신-인간이 매장되었습니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그를 무시하는 상징입니다. 그런 다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구절은 승영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즉, 그의 부활에서 그의 재림까지 이르는 상응하는 조건을 가진 연대기적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에게 부여하셨으니, 예수의 이름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두 가지 상태는 그의 낮추심의 상태, 낮추심, 그리고 그의 승영의 상태입니다.

두 개의 연대기적 단계와 그에 상응하는 조건. 굴욕, 승영. 이 전체 규정은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가 땅에 계셨던 예수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차이점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가 인간성을 포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성육신은 영구적입니다.

차이점은 그가 이 기간인 33년 반 동안 굴욕, 약함, 취약함, 필요, 고통의 상태에 있었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절정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의 매장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고, 등등.

그의 승천의 상태는 그의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 그의 승천의 상태와 모든 사역은 그의 재림에서 완성됩니다. 이 빌립보서 구절에는 두 가지 문제가 따르고, 저는 이미 암시를 했고, 암시를 넘어 두 번이나 언급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고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맞나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 구절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르치는가? 두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요' 와 '예' 입니다. 이사야 45장은 배경이예요. 야훼는 이 장 전체에 걸쳐 말씀하시는 분이예요.

나는 주님이고, 다른 이가 없다, 45:18.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21.

나는 여호와요, 다른 이가 없느니라 22:23 나 스스로 맹세하노라 엄숙한 말씀이여 내 입에서 의로움으로 말하여 돌아오지 아니할 말씀이로다 나에게 여호와가 이르노라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충성을 맹세하리라

그리고 야훼는 빌립보서 2:9-11에서 예수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는 책받침이 있습니다.

포함이 있습니다. 구절의 시작과 끝에서 그는 신의 형상으로 존재했습니다 . 그리고 형상이 BB 워필드와 다른 위대한 학자들이 가르친 것처럼 본질적인 본성을 의미하든, 더 최근의 견해로, 종의 형상과 평행하며 외적인 형상을 의미하든,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신 외에는 그가 신의 형상으로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들은 이 구절의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이고, 그는 야훼이며,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고 모든 혀가 그에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모든 혀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무릎이예요. 네. 그럼 모두가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아니요.

저는 성경적 가르침의 일관성을 위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성서는 매우 분명합니다. 이 가르침의 주요 저자는 예수님이시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며 지옥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45장의 다음 두 구절은 이 문제를 명확히 합니다.

모든 무릎이 꿇고 , 모든 혀가 충성을 맹세하지만 오직 주님 안에서만 나, 우리의 의로움과 힘에 대해 말하리라. 이사야 45:24. 그에게 와서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오, 그들은 무릎을 꿇을 것이고, 그들의 혀로 고백할 것입니다. 그를 향해 분노한 모든 사람들, 잃어버린 자, 사악한 자들은 그들의 실수, 그들의 삶의 큰 실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낮은 평가, 무릎을 꿇고 이생에서 그의 주권을 고백하기를 거부한 것을 인정하도록 강요받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즉, 믿는 유대인이든, 참으로 참된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신약 교회를 구성하는 믿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의롭다함을 받고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모두가 절하고, 모두가 고백하지만,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됩니다. 그의 주권에 대한 보편적인 인정이지만, 보편적인 구원은 아닙니다.

절하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분노하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앞에서 겸손해지고 자신들이 무의식적으로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것은 경배자로서가 아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자로서입니다. 다른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그의 신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문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했습니다 . 그는 노예의 형상을 취하셨고, 아버지는 그를 일으키고 높이셨습니다.

오, 그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 구절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야훼에 관한 이사야 45장의 언어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게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영광을 돌리며 결론을 맺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의 백성을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의 영생, 새로운 삶과 거듭남 속에서. 예수께서 죽은 자의 부활로 돌아오실 시대의 마지막에 영생.

하나님께서서는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주님으로 인정받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절하고, 모든 사람이 혀로 고백하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체계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아들은 왕국을 아버지께 넘겨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이 모든 것 안에 있게 할 것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그리스도 교리에 대한 과정을 마칩니다. 우리는 교부들의 역사 신학 또는 그리스도론을 탐구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자와 여자에게, 그들이 예수 안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신성한 아들로부터 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매우 다른 출발점을 가진 현대 그리스도론을 탐구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변증이나 현대인과의 소통을 위해 비교적 아래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현대 신학은 확실히 아래로부터 시작했으며, 계속해서, 대부분의 경우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신성이 없고 우리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수 없는 인간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교회와 교파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저에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시간을 내어 우리 주님에 대한 위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선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베들레헴에서 사람의 아들이 되기 전에 존재했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입니다. 십자가와 빈 무덤을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그들은 복음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성육신이 없으면 십자가도 없습니다. 성육신이 없으면 빈 무덤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육신이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신비롭게,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 우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Whew!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5가지 위대한 역사적 증거로 그의 신성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죄와 별개로 진정한 인간이 되었는데, 죄는 인류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본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살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단일 인격성과 그것이 수반하는 몇 가지 것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네스토리우스주의의 카리브디스를 피하고, 그를 두 개로 나누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신이나 인간으로 섞지 않는 모노피지스트즘이나 에우티케스주의의 카리브디스를 피합니다. 일종의 세 번째 혼성체입니다. 우리는 그의 속성의 행사에 대해 생각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를 알고 사랑하는 우리가 죄인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종이 되신 영광의 주님을 경배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증거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론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0, 체계학, 그리스도의 인간성, 속성의 소통, 속성의 실행, 두 상태, 빌립보서 2:1-11입니다.